부산영화사

정 봉 석
(동아대 강사)

목 류

I. 부산영화의 전사(前史)
II. 기존의 부산영화사 개관
   1. 영령기
   2. 발아기
   3. 전시영화와 평론의 대두
   4. 영화 연구활동의 확산
   5. 극장가의 첨제와 소형영화운동의 활성화
   6. 단편영화의 활성화와 연극운동의 부흥
III. 동시대 부산영화의 현황
   1. 90년대 전반기의 영화계
   2. 예술영화 수용의 확대
   3.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4.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5. 「97 부산단편 에니메이션영화제」 개최
IV. 부산영화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
I. 부산영화의 전사(前史)

1895년 프랑스의 루이예르 형제가 최초로 시내마트그라프를 통해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고품으로 담아낸 이래 영화는 그 지평을 기술의 체계에서 예술의 영역으로 확대시키면서 한 세기를 풍미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고작 100년의 역사만으로도 수천년을 이어온 여타 예술 갈래의 자취에 못지 않은 우위를 확보했으며 또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그것은 기술과 예술의 복합체로서 영상 산업의 개념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영화가 한국에 수입, 상영된 것은 1897년 가을로 기록되고 있어, 아주 빠른 속도로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903년에는 한성의 동대문 근처 전기회사 기계장에서 활동사진을 상영하는 한편, 그해 6월 3일자 〈황성신문〉에는 `대한열 구미각도의 도시풍경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준다`는 최초의 영화 장고가 실리고 있어 이 당시 한국의 경치를 찍은 활동사진이 존재했음을 정확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6년이 더 지난 이후가 된다. 즉 1919년에 비록 신과 연쇄극의 형식일 지라도 〈의리적 구투〉가 한국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됨으로써 한국 영화의 역사적 기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10월 27일 『단성사』에서 개봉된 이 풍품은 당시 문화예술 이끌던 김도산이 『단성사』 주인 박승필의 제작적 후원을 얻어 제작한 것으로서, 완전한 영화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관객들로부터는 대단한 호응을 얻게 된다. 이에 협업이 〈시우정〉, 〈형사고심〉, 〈천명〉등이

2) 연례극인 영화와 연극이 함께 결합된 것으로 배우들의 무대실연이 진행되던 장면에 위치한 악의 형식을 담은 넌음악으로 `활동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형식적 기원·드라마이다.

- 325 -
192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학생 의절〉(임성규 제작), 〈저기〉(이기세 제작) 등 10여편의 연쇄극이 상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23년에는 윤택남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한 〈월하의 명세〉가 완성한 영화의 형태로 제작되어 4월 9일 개봉됨으로써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영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같은 해에 〈황금관〉과 〈조선국장〉을 관영한 일본인 하야가와 마츠나카가 〈춘향전〉을 제작하여 극장 상영에 홍행시켰으며, 그 이듬해에는 박승필이 〈데프와 쓰연전〉 모 두를 한국인으로만 구성하여 〈장화홍련전〉을 제작하는 등, 영화 제작 활 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활로가 모색되어갔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영화의 사업적 흥행 가치가 부상을 되고 그에 부응하여 1924년부터는 전격적으로 영화제작사가 설립되면서 한국 영화계는 이영 활기를 틀기 시작한다. 즉 24년에 최초로 『조선케이블시티네마학사』가 설립된 것을 시발로 하여, 25년에는 『은행남프로덕션』, 『고려영화제작소』, 『고려케이블시티네마』가, 이어 26년에는 『청기시티네마』, 『반도시티네마』, 『제럴 영화협회』, 『조선케이블시티네마』 등이 다투어 설립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부산영화사는 이 시점에서부터 그 시발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부산영화사 뿐만 아니라한국印象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된다. 즉 최초의 전문 영화제작사인 『조선케이블시티네마』가 부산에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한국영화계에 전문 제작의 본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부산은 한국영화계에 있어 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고 있다. 1996년에 한국 최초의 국제 영화제인 『부산국제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1997년 현재 제2회 영화제를 발전적으로 유지해념으로써 이제 부산은 명실공히 한국영화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부산영화사를 시대적 특징별로 제조명하고, 1990년대 동시대
부산 영화의 주요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부산 영화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밝히는 것은 의의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본문에서 제 조명하는 1990년대 이전까지의 부산영화사는 주로 촬영 연구와 자료를 참고로 정리함을 밝혀 둔다.

II. 기존의 부산영화사 개관

1. 여명기 (1924~1945)

전후하였다는해 부산 영화산업의 시작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작사인 「조선테마주식회사」가 설립된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설립은 부산영화사의 시발점이기도 한 ‘무대예술연구회 제2회 시연’이 그 메개가 된다.  

동래군 출생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동경예술학』에서 연극을 연수한 현철은 그가 창립한『경성예술학원』의 연극반 제1기생들을 중심으로『무대예술연구회』를 조직하고, 서울『단성사』에서 『공과 결혼신경』(제호작), 『이해아이』(석방작) 등을 시연하였으나 홍행에 실패, 해산하였다. 그중『무·연』소속의 경남출신 김정현 3), 유수선 4), 엄진영 등은 김두현, 이정순 등과 함께 이상필, 박승화, 이재현, 윤백남, 윤용갑, 안중화, 이원화, 이승만 등을 포섭하여 다시『백두회(白羽會)』를 만들고, 범아사에서 약 2개월의 연습을 거쳐 양산 청년회관에서 『강한몽』(尾崎紅葉

3) ① 주윤석, 『동학』, 『부산시사』, 4, 부산시사관학회, 1991.
   ② 강동수, 『부산영화70년사』, 『국제신문』, 1992. 9. 3~12, 24. 매주 17회 연재.
4) 안중화, 『한국영화인력고시』, 출판사, 1962, p.52.
5) 『무·연』은 본래 김정현의 사례 2천원 기부로 설립되었었다.

= 327 =
작『金色夜叉』 번안문의 공연이나 또한 실패한다. 그러한 때에 '민족운동은 연극을 통하여 대중을 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양산 출신 임주태가 거듭 만회를 촉책하여『무대예술연구회』가 재기되고, 다시 한 번 범어사에서의 연출을 거쳐 `무대예술연구회 제2회 시연'을 적산한『한결』(현대 중앙동)소재「국제관」에서 가진다. 이들은『황』( numberWith의 작),『월광곡』(그레고리 작),『서인의 가정』(김영수 작),『회미의 눈물』(이기세 작),『오명』(오백남 작),『등아는 야비자』(주광온 작) 등의 작품으로 두 차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룬다. 

그것을 지켜본 일본인 다카사간조우(高佐貫長)가 '무·연'이 참가한다면 한국에서 최초로 영화사를 창립하겠다'는 의향을 내놓음으로써 '무·연'이 해산되고『조선키네마사』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당시 화폐로 자본금 20만원이 투입된 이 영화제작사는 일본인 나카오도이치(柴田忠一)가 대주주로서 사장에 취임하고,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 의사, 변호사, 상인들이 대부분 주주들로 구성되었으며, 무대예술연구회 회원인 엄주태·이승만·이해경 등도 소액 출자자로 나선다.

『조선키네마사』의 첫 작품은『해의 희망』(1924년)이란 멜로드라마였다. 제작비 800원을 들여 제작된 이 작품은 주로 부산과 제주도, 대구 등지에서의 로케이션 환경으로 이루어졌다. 감독은 승려출신의 일본인 다카사간조우가 왕립영화한 한국영으로 말고, 일본에서 영화 기술자 스도오(得蔵), 사이도다(齋遠), 미야시타(宮下) 등을 초청했다. 조감독은 이경손이 담당했고 주연에는 부산에 본사를 둔『경남은행』 출신계 고원(鬆員)이자『전부산군 야구팀』의 투수로도 명성을 얻었던 채남아 이주경이가 등장하였다.

6) 서극영,『연극편』,『경상남도지』, 1963, pp.1123f.
7) 법률대학을 나와 큰 사찰 주재로 있던 다카사는 스님을면서도 취재역 사장 겸 활영소장 겸 영화감독 겸 사진가로 작가로 1인 5역을 맡았다.

최화주,『암의 빛』, p.46.

— 328 —
이 전격적으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이월화, 이재진 등 초기의 운악스타와 이정손, 안두환 등이 출연하였던 이 영화는 일본의 기술과 자본, 한국의 출연진으로 이루어진 한일합작영화였던 셈이다.

시나리오는 다카사가 직접 창작하였다. 작품의 내용은 부자 2대에 걸쳐 엄청난 산업 기간 동안 그로 그동안 사회적 수준과 부자수준의 적절한 자살을 하고 만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졌다. 작품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선동적이었으며, 일본의 '일향영화사'에 수출되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풍속적이며 반영적인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첫 작품이 국내에서 홍성에 설립한 다카사는 한국 관객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한 한국 사람이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두 번째 작품을 운행시키고 매가진도 직접 집계하였다. 이주영, 김우연, 안종화, 이재진 등이 주역을 맡은 공중사극물 '광인상영' (1925년)은 세종의 넓게 아들 안녕재의 폭풍 oper만이 문제가 둘어난 김전사와 사랑하던 학생의 도피를 벌이나 결국 끝나자살하고 만다는 줄거리의 영화였다. 그러나

8) 1900년 초창에서 태어나 부산공립정보학교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진부인 이주영은 대중가, 대학가로도 유명하였던 흥미하고 정열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매우 출연 교동을 받자 즉시에서 등극하고 순항에는 즉각 사표를 냈다. 그리고 '해외 비행'에 이어 제2편 '운행기'에도 주로서 출연한다. 그렇게 영광이 높아진 그는 손수 제3편을 기획하고 사내에서 사전편을 대형작 를 꾸미며 '조선기행'에 가문을 맡자 제작은 중단되고 만다. 영화계작과 출연이 축절되어 그는 '영화동인회'를 만들고 스스로 '경상도좌 출'^2편과 '조선기행' 등의 자본을 썼고, '부산극장'에서 소인극을 공연하여 일장료 수익으로 부산청년좌회관 건립에도 팔랐고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배우로서의 기회와 노동을 하던 중 '간첩'에 걸려 38세의 나이로 요원하고 만다. 비록 배우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는 부산이 배출한 제1호 영화배우이자 영화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최화수, 《같은 길》, pp.46~48 참조.
이 또한 영화적 완성도나 홍형면에서 살피고 보는데, 그중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영화 초창기의 틀을 나온 규가 이 작품에서 단락 가마운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후 『조선테마사』는 세 번째 작품 『暗光』(1925년)과 네 번째 작품 『村의 영웅』(1925년)을 제작하고는 끝내 해산되고 만다.

『조선테마주식회사』는 자본과 기술을 절대로 일본에 의존함으로써 일본제국에 의한 문화적 경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단명으로 끝나긴 했으나 한국영화의 초창기를 개척한 영화인들을 다수 발굴하고 훈련시켰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국영화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였다든 점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사를 바탕으로 초기 한국 영화계의 기둥이었던 온택남, 이경순, 나운규, 안종화 등이 배우와 연출자로서의 기량을 뽐으며, 이완월, 이계진 등이 당대의 스타로 발돋움한 것이다.

당시 부산지역에서는 현재의 종구중앙동에 있던『국제관』, 동양동에 있던

9) 작본, 감독을 왕래할 많이 하고 이재현, 안종화, 김우연이 출연한, 연산군의 충희 장 탁수의 인생기를 그린 동화사극물
10) 부산에서만 개봉되었을 뿐 서울에서는 상영되지 못했으며, 제작과 각본을 족머영이 맡았다는 것은 알겠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다.
11) 온택남은 이경순, 윤갑용, 주상순, 나운규, 김대진, 주인규, 김우연 등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 1925년에 한국 최초의 영화제작자가인 『온택남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심정』 등을 제작하였다.
12) 이경순도 감독으로 데뷔하여 『양한풍』(1926), 『봉황의 연주기』(1926), 『산재령』(1926) 등을 연출한다.
13) 『술병전』에 단역을 출연했던 출사 나오규는 이후 『아리랑』(1926)에서 각본, 감독, 주연, 제작을 맡아야 전국을 가득한 도가니로 흘라난으며,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한국영화는 조명한 특특 오락물의 차원에서 진정한 예술영화의 경지를 도약하게 된다. 그는 이 밖에도 『들쥐』(1927), 『열이가』(1927), 『사랑을 찾 아서』(1928), 『밍어리 삼부모』(1929), 『아리랑, 그 후 이야기』(1930), 『강진나무』(1935) 등 1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10여편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14) 안종화도 『웃장시』(1930), 『술방비록』(1930) 등을 제작하였다.
『상생관』, 남포동에 있던『신관』 등이 개봉관으로 관객을 맞아 들였다.

한국영화 초창기『조선카네마주식회사』의 해산 이후 해방까지 한국영화의 관동은 서울로 그 중심이 이동되었으며, 부산은 한국영화사에 별다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해방 직후 부산 영화계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자료도 이미 일설된지 오래되고 증언할 만한 영화계 인사들도 작고한 지금은 그 기간이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2. 벌어가 (1945~1950)

1945년 해방과 함께 민족영화의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부산영화계도 오랜 공백을 채고 서서히 기지를 쌓기 시작한다. 먼저 남한지역에 전주한 미군정은 1946년 4월 12일과 10월 8일에 각각 영화관법령을 발표, 일체에 의한 기존 일체의 영화관법령을 폐지하고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등의 감독과 단속을 공보부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1946년 5월 경남도에 공보과가 신설되어 영화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국장의 시설비에 따른 관리의 향의와 비난에 대해 국장청이 기준한 관할을 문화공간으로서 새롭게 단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그 조치로 경남도 공보과는 『조선극장(구 소화관)』, 『국제영화극장(구 보례관)』, 『항도극장(구 부산극장)』, 『대중극장(구 상생관)』, 『항구극장(구 수화)』, 『대화관』, 『삼일극장(구 조일극장)』, 『동래극장』 등 부산시내 9개 극장의 관리인을 부산의 예술문화인들에게 위촉한다. 15)

15) 1946년 11월에는 『고려영화사』(대표 김진무)가 설립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부산에 최초로 설립된 영화사로서 65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초장 『조선극장』, 2층에 사무실을 입대하여 주로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대표 김진무는 46년에 부산, 경남의 영화사를 모아『영우회』를 창립하여 3개까지 회원을 얻었으며, 59년에는 『인생사랑』을 제작하여 제2회『부산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6) 《인두종보》, 1946. 3. 17.
주옥석, 『한의 논문』, p.492 참조.

- 331 -
그러나 여전한 사이에 과거 일본인 경영주와 함께 극장관리에 종사했던 종업원들의 반발로 관리인이 선정된 문화인들과 종업원들과의 갈등이 급제로 터진 면모의 극장도 홍보실 감독관 데블린 씨의 중위는 완전한 제도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극장관리의 임무를 전담한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한다. 그리하여 수입금은 은행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세정적 갈등을 유보시킨 가운데 1946년 3월 23일, 경남도청 장관 퀘러스트 대령은 성명을 통해 문화인의 극장관리제도를 빠질시키고 구종업원의 관리체계를 존속토록 한다.

이같은 갈등 속에서도 점차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서 부산에서도 해방 이후 처음으로 극영화가 제작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개시되었다. 즉 정부 수립전인 1948년 초 광복통에 《예술영화사》인 영화제작사가 설립되어 제1회 작품으로 《해선》(이후 《갈매기》로 개제)의 활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제작은 이철학이 강영구의 출자로 담당하고 이유호 각본, 이규환 감독으로 약 1년여에 걸쳐 1300만원의 제작비로 완성되었다. 신진작가 이옥하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도감으로 한 일종의 케이핑영화인 이 작품은 갈매기처럼 고독한 감화원 소년들을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피는 보모의 여기를 다루고 있다. 양승용 활영에 김동균, 박승남 등이 출연하며, 특히 50년대 은막의 스타로 한국영화사에 그 이름을 새기는 조영병이 처녀 데뷔한 작품이기도 하다. 수영소학교를 중심으로 로케이션 활영이 이루어졌으며, 홍명에도 성공한 항도 부산의 자랑할만한 영화가 되었다고 당시의 전문은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49년 7월 부산에는 기독영화 제작을 목표로 한 《협동영화문화

17) 전병성, 《한국영화총서》, 한국영화진흥협회, 1972, p.277.
연구소」가 창설된다. 기획 운현두, 제작 양철, 기술 학열, 보급 이재수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군당국의 후원으로 기록영화 제작을 고취하고, 문화영화 극영화의 제작과 대외영화의 수출입 배급업무도 취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사무실을 조선극장 앞 골든 대방 이층 별관에 두고, 밍크와 함께 제1회 작품을 준비했다고 기록되고 있으나, 그 이후의 활동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비무어 중도에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에서 상영된 영화중, 특기할만한 작품으로는 나윤규의 신관「아리랑」과 유리우드의 초기영작들이었다. 또한 암흑단의 공연과 연극, 영화가 동시에 공연되는 특별한 황해관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관객을 대상으로 한 보급행위가 이 시기에 비롯되었다. 경남도 후생과가 염동을 앞두고 구호사업비 3000만원을 특별사업비로 책정, 각 영화관에 '동정금 모집상자'를 설치하고, 구호단체 직원이 배식한 가운데 특별 장수되기도 했던 것이다. 19)

한편 1949년 5월 26일 유리우드는 미국영화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중지를 발표한다. 이 조치는 각국의 영화수입금 자국동결에 대한 불만 조치로서 취해졌고, 이후 한국의 각 국장은 심각한 배급의 불균형과 함께 영화문화 육성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정부대책을 축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시각을 유리우드 영화의 한국시장 강점은 현재에도 UIP 적폐 제도아래 계속 지배되고 있어 영화사적인 반성을 축구하게 된다.

18) 『민주공보』, 1948. 1. 13.
19) 『민주공보』, 1949. 7. 5.
20) 『민주공보』, 1946. 12. 1.

지의 의무적으로 입장표 왼에 5원을 추가하는 형식이었다. 당시의 입장표가 영화관람의 경우 입장료(부 소재지)가 30원이었으나 두날개 동사상황이나 대학의 경우 45원까지 반응으로써 5원의 동정금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주음탁, 『앞의 논문』, p.493.
3. 전시영화와 평론의 대두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한국영화계는 큰 타격을 받지만 아이라니올해도 부산은 한시적일지라도 다시 한번 영화의 중심지가 된다. 전쟁으로 인해 다수의 영화인들이 부산으로 피난하여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남쪽으로 피난온 영화인들은 부산, 대구, 진해 등지에 흩어져 영화활동을 계속했다.

국방부는 부산에 경춘국을 두고 《국방뉴스》와 《백인민의 범》 등을 제작하여 후방 국민들에게 전쟁뉴스를 전달하였다. 공보처 역시 부산으로 후퇴, 1952년에는 부산의 경남도청 지하실에 현상소를 시설하고 《대한뉴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전시체제와 정상적인 극영화 제작은 잠두도 못내있고 전쟁관련 다큐멘터리나 국민들의 예극심을 자극하는 계몽영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나동강》, 《고향의 풍물》, 《성불사》, 《공포의 밤》 등이 당시 부산에서 제작된 영화들이었다.

특히 1951년에 제작된 《나동강》은 부산의 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도움이었던 《항토문화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 공보처의 재정 후원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너무나도 널리 예장되었던 주제가 ‘나동강’ (이은상 작사, 윤이상 작곡)이 중재, 지금까지 부산의 원로 영화 관계자들이 자주 회고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제작 책임에 김재문이 맡고 우산출판 현행사가 공동기획 및 제작을, 김창균 감독과 각본을 맡고,

21) 부산의 사진작가 김재문, 서양화가 우산출, 연극인 한정철, 시인 이은상, 작곡가 윤이상, 금수현 등이 회원으로 있었다.
22) “보야파 산리가야 밤사는 역사/호로는 듯 잠적있는 기나긴 길물/언제 머라에서 자란 나니들아/이 강물 내 혼간에 괴가 된 줄을/호로 나동강 호로 나동강/없없이 호로는 전통의 나동강”

이 노래는 당시 부산사범학교 교사였던 윤이상이 작곡했는데, 우리 음악을 주로 한 민족적인 정서가 넘쳐흐르는 곡이었다. 특히 이 노래는 경남고, 경남상고, 경 남고, 부산여고 남녀 학생들이 구성이 된 합창단과 바리톤 이인영이 김호만의 지휘로 우수한 합창으로 볼ерь 예력이 넘쳤다.

최화수, 《말의 죽》, p.93.
김석호가 촬영했고, 그리고 윤이상이 음악을, 최재호와 이태균이 주연을 맡았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영남인들의 삶의 총체를 담는다는 목표로 제작에 들여간 이 영화는 〈전통의 낙동강〉, 〈승리의 낙동강〉, 〈희망의 낙동강〉 등 3부작으로 구성되었다. 안동 도산시원과 산산 도라시 등지에서 촬영을 시작하여 낙동강을 따라 삼랑진, 양산, 김해, 울산 등 감독 및 업무 등지로 로케이션하면서 낙동강변의 자연과 문화 등 향토색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귀향한 인텔리 청년이 고향의 여교사인 에이린과 함께 고항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춘다는 즐거리의 이 영화에는 〈낙동강〉 이외에도 다른 여러 곡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으며, 국방부와 미국 공보원의 협조를 얻어 실제의 낙동강 전투 장면도 삽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용가 조용자와 낙동강변에서 춤을 추는 장면도 있어 관객의 시선을 모았다. 1951년 가을 약 40일 동안에 촬영한 3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16㎜ 흑백 필름이 이 영화는 1952년 초에 『문화극장』에서 개봉된 후 경남 각 지역 학교나 강연장에서 상영되었으며, 영남의 풍물을 잘 살려낸 수작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부산이 제작한 영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1952년 경상남도 공보가 제작비를 댄 반공영화 〈고향의 동물〉은 장화현 감독이 오늘날 영화계의 거목이 된 유현목이 조감독을 맡았으며, 양일인, 독우영 등이 주연을 맡았다. 이 영화는 당시 제작비를 받고서도 PX로부터 미처 필름을 구하지 못한 제작팀이 촬영 당일 확인 나온 도청 공보원을 속이기 위해 밤 촬영기를 돌리기도 했으며, 촬영 후에는 군수품인 필름을 불법 거래했다는 혐의로 이군 정보기관에 연행되기도 하는 등이 전시하 에피소드도 남기고 있다.

〈성불사〉는 광복기의 대표적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윤봉춘 감독이 만든 작품이다. 1952년 5월 10일 부산 시청 맞은편에 있던 부민관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이규영 각본에 김명제가 촬영을 맡았고, 윤상희, 이범화, 이금용 등이 출연했다. 감영을 기피하여 성불사에 숨은 한 청년이 주지승의 감화를
받아 전진임대한다는 계통영화였다.

전쟁이 끝난 뒤 윤봉준은 1956년 4월에 부산에 내려와 〈논개〉를 제작(김남희·최정호 주연에 김영제 카메오)하여 다시 부산 영화계에 활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인들은 전쟁이 끝난 곳에 동시에 중앙으로 돌아가기로써 부산영화계는 다시 소장 상태를 맞게 된다.

한편, 어려운 제작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부산 극장가는 외화의 수입으로 대단히 호황을 누렸다.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과 그 후 유종을 영화관으로 잡아나와 있으면 했다. 당시의 대표적 극장은 현재 청천동의 『동아극장』, 『문화극장』, 광복동의 『부산관』, 『경남도립극장』(현재의 『부산극장』), 초량동의 『중앙극장』, 영도 남항동의 『항구극장』 등이 있었다. 당시 전시대에 상영된 작품들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의 영상화를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영화산업의 활성화로 자작 외화와 방화의 수급이 형평을 이루게 된다.

한편, 50년대 부산 영화운동에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활동은 영화평론 작업이다. 해방과 함께 1945년 9월 1일 창간된 『미주정보』의 지면을 통해 임시 식화생, 이철녀, 이정 등의 이름으로 반미성향과 좌익적 성향을 보여주는 평론이 가득한 이후, 전쟁과 함께 부산의 영화평론 작업은 다시 피난 온 영화인들의 땅이 되는데, 1950년 9월 10일 영화인들과 영화평론가들을 주축으로 창립된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그것이다.

후전투 그들이 중앙으로 돌아가 후 부산지역에서 영화평론활동을 하던 각계의 지식인들이 1958년 3월 '부산영화평론가협회'를 창립한다. 초대 회장에 박두석과 회원으로는 강경상·이주홍·김일구·여수중·허창·황성주 등이 참여한 이 모임은 이후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영화문화의 지변확대와 영화예술의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한다.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부산일보사가 박두석의 강력한 전의를 수용하여
1958년 2월 “부일영화사” 제도를 마련한 사실이다. 이 시대 제도는 매년 부산에서 상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부문별 시상을 하며 한국영화 베스트 5와 외국영화 베스트 10을 선정 제1위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제1회 시상은 이주홍·황용주·장갑상·허창·김일구·박두석·구중희·정무호·곽열 등 명예 회원들과 학자, 언론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영화부문에 유현목의 《악어비린 �まとめ》과 외화부문에 F. 육리니의 《갑》이 선정되어 ‘국제국산’에서 화려하게 식이 거행되고, 이어 카피레드를 벌리는 등, 부산의 문화지역으로 정착되었다. 이 “부일영화상”은 지방에서 제정된 최초의 것으로서 이후 “청룡상”, “한국영화예술상”, “대종상” 등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영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다가 1973년에 이상하게 중단된다.

50년대 후반의 부산영화계는 이처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활동으로 관객의 확산, 평론작업의 정착 발전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영화제작 작업은 휴전과 더불어 영화인들이 서울로 환도함에 따라 오히려 쇠퇴하여 간 특징을 보인다.

4. 영화 연구작업의 확산 (1960년대)

50년대 말부터 호황을 누리던 한국영화는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부산의 영화계는 실제 제작부문에선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영화비평작업이나 관객운동은 그대로 활발했으나 관공서의 후원으로 몇몇 극영화가 제작된 격정당시보다 제작부문은 오히려 후퇴한 감도 있다. 이 시대 부산의 영화세작은 『부산영화제작소』와 『재건뉴스영화제작소』 등에 의해 주로 문화 영화나 정부기관의 홍보영화, 그리고 광고영화를 제작해온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영화제작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50년대 말 이경춘 감독이 이주홍 원작의 ‘달선 춘향전’을 김해와 밀양 등지에서 촬영하다 중도 포기한 일이 있고, 1967년 12월 청상남도 공보실의 기록영화 ‘남해의 보고’의 제작도 있었다. 전년도에 전연액 16mm로 제작된 홍보영화 ‘앞서자 정남’에 이어 역시 16mm 전연액으로 제작된 ‘남해의 보고’는 한국기 감독에 촬영은 캡슐이 담당, 1969년 8월의 문공부 주최 비행행동 영화연대에서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부산 ‘영화인협회’가 결성되었다. 1962년 8월, 군사혁명 정부에 의해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 정남지부’가 결성되고, 다시 1963년 1월 1일부터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자, 2월에 ‘예총 부산 지부’로 분리되면서 그 산하에 ‘영화인협회 부산지부’가 발족됨으로써 부산영화계는 그 외형을 갖추기 시작한다. 협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필우(1899~1978)는 부산영화인 가운데 배우를 수 없는 인물이다. 4·19 혁명 직후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온 그는 이 시기에 부산 영화계의 기틀을 닦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60년 부산에 정착한 후 서면의 현 병무정 자리에 ‘부산영화학원’을 세우고 영화인을 양성했다. 그리고 태종대 지역에 한국 최초의 종합 촬영소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부산시와 중앙에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시민 밤을 기울’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건립운동을 이어간다. 그러나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 부지불로가 안된다는 부산시의 냉담한 반응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 불발로 그치고 만다. 종합촬영소는 영화의 제작에 있어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어서, 이의 불발은 부산영화가 자체 제작의 기회를 이후로도 계속해서 가지지 못하게 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23) 《부산일보》, 1967년 12월 5일, 1969년 8월 2일  
24)  한국영화 최초의 촬영기사로 1920년 ‘지기’를 찍은 한 그는 한국영화 여명기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다. 《광동лен고》 《광동호란》 《영화동고》 《영화동고》 등을 제작 활영했으며 특히 1935년 한국최초의 토끼영화 ‘춘향전’을 제작했다.  
강동수, 《영화 기사》, 1992. 10. 15.
제작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반면 기타 영화운동에서는 활기를 터치 시작한다. 50년대 후반의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창설, "부일영화상" 제정 등으로 시작된 영화운동은 60년대로 들어서며 각종 영화관련 단체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1960년 4월 5일 『부산시나리오연구회』가 발족하여 시나리오 연구자와 창작자들을 가진 갱 banda 인사들에게 자작 시나리오나 출판된 시나리오의 연구를 추진해 하고 합병화를 같기도 한다. 다음해인 1961년 4월 23일에는 『신조사나리오동인회』가 발족되고, 1960년 10월 20일에는 『한국영화동호인협회』가 결성(회장 전호성, 장무 최성규)되어 관객대중에 대한 영화감성과 비평운동 전개를 꾸준히 하고, 『하나』(김기영 감독)의 합평과 함께 학생부를 결성하여 관객운동에 나서기도 한다. 1957년에 발족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영화예술연구회』도 60년대 들어 영화의 이론적 확립을 위해 매주 토요일 합평과 연구발표를 갖는다. 1961년 4월 9일에는 『부산필름클럽』이, 1964년에는 『네포염동인회』가 발족되고, 서울의 영화평론지인 『영화예술사』가 1965년 5월, 부산에 『부산시네클럽』을 결성하여 영화감성의 개개성을 서로 기도 했다. 이들은 영화운동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활동도 60년대 내내 꾸준히 전개되었다. 이후 허창은 상경하여 『한국영화평론가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다.

한편, 이같은 일반인들의 활동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영화세계운동도 이 시기에 활발하게 나타났다. 부산대학가의 연합체인 『부산대학영화연구회』는 60년대 후반부터 매년의 장관에 우수작 10편을 선정 발

25) 회원은 여수중, 정정화, 윤가현, 김일구, 조순, 정부호, 최성규, 최성언, 박용규, 이중명 등 당시 일산시에 영화단체를 기초하거나 영화시설 홍성 청와 또는 한국 문학 영화 계열에 참여하는 인사들로서 시나리오 창작이나 영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었다. 특히 여수중은 1960년대 후반 상경하여 본격적인 시나리오작가 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상을 수상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한다.
주용학, 『말의 논문』, p.502.
표하고 「대학동영상회의」를 열어 영화감상, 영화음악감상,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959년 개봉판과 제작영업을 합쳐 40개였던 부산의 극장수는 60대로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69년에 54개소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개봉판은 10개소에 이르렀다. 또 연간 관람객 수도 꾸준히 늘어났는데, 그 통계를 살펴보면 66년 1,970만명, 67년 2,125만여명, 68년 2,322만여명 등의 증가를 보인다. 이는 전국 연간 영화관람객 수(17,100만여명)의 15～16%를 차지하였으며로 반만치 않은 비중이었다.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도 전국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영화에 대한 부산 관객의 열기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 시기부터 그들의 수요를 영화나 음악 제작의 방향으로 중도하는 점은 아시아 음악을 남긴다. 그리고 엄격한 극장시설과 TV의 보급은 영화인구를 감소시켜 70년대 접어들면서 극장가는 급격히 쇠퇴하게된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 영화연구의 활동이 증대된 것에 반해 제작의 열기는 식어감으로써 부산영화의 한계를 드러내기에 이르는 것은 아마도 연성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5. 극장가의 침체와 소형영화 운동의 활성화 (1970년대)

1970년대 들어 TV의 대중화와 함께, 유신흥국에 의해 영화가 국제사양의 일환으로 규정되어지면서 한국영화의 소재와 범위는 하이틴이나 호스터 스튜디오의 멜로들이 촉소되고 따라서 극장가의 쇠퇴의 일로를 겪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부산의 영화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도래되기 시작

26) 강연회의 내용은 유현종 감독의 《동화주의 영화》, 이성구 감독의 《영화연출과 영상》, 배우 박영의 《영화연기의 특성》, 배우 남궁필의 《나의 연기수업》 등이다.
27) 그 중 주요한 내용으로는 정인성의 《사진예술과 영화》, 장갑상의 《입모디파이의 문제점》, 백지睨의 《영화미학의 비교연구》 등이 있다.
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형영화 운동의 대동과 활성화이다. 소형영화 운동은 극영화 제작단계 이전의 아마추어 영화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영화인구의 저변확대와 영화작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데는 유용한 도구가 아닐 수 없다.

부산 최초의 소형영화 운동은 1970년 7월 7일 오후 7시 남포동 "세븐 다방"에서 김용운(사진작가), 민건식(내파의사), 이형탁(치파의사), 김태석(동아대 교수), 국광용(은행원) 등의 순수 영화애호가들이 발기인 모임을 가진 이후, 10월 20일 미분화회에서『부산소형영화동호회』를 창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창립식에는 80여명의 화객이 참석한 가운데『하와이여행』(민건식),『난쟁이 레슬링』(국광용),『해인사당방』(이형탁),『부산관광』(김용운) 등의 작품이 상영되었다. 이들은 그후 첫사업으로 1971년 6월 13일『제1회 전국소형영화활영대회』를『영화인협회 부산지부』 주관 아래 열리게 된다. 이 대회는 그 이듬해부터 국제신보사와 부산 MBC TV가 공동주최하여 80년대초『전국활영대회』로 통합될 때까지 꾸준히 열리며 부산뿐 아니라 국내 소형영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72년에는 국제소형영화단체인『국제시네프렌드클럽(CFC)』에 가입했으며 일본의『ABU』란 단체와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영상회를 일본과 부산을 반값이가며 정기적으로 열었다. 그는 가운데 회원들의 작품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김석배는『한국의 동경』『한국의 고척』『한국의 민속무』 등으로 한국의 미를 필름에 담는 한편 서산대사, 사명대사, 경봉소 담 등 불교계 위인들의 일대기를 제작하는 등 20여년 동안 약 100여편의 작품을 제작하는 활발한 반한 기록을 남긴다.

이밖에 부산대의『농부』는 제5회『히로시마국제아마추어영화제』에서 농부대신상인 우수상을 수상하고, 김명준의『고혜』가 제2회『일본 퀄터리콘테스트』에 동상을 수상하는 한편, 강선태의『월결』이 제15회『전일본콩쿠르』에서 임상하는 등 부산작가들이 소형영화 부문에서 발군의 성과를
남기고 있다.

70년대의 소형영화 운동은 현실적으로 국영화 제작이 어려운 부산의 여건에서 영화제작에 대한 관심을 완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80년대 비디오 영상문화 창조, 한국단편영화제 창설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화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 부산의 영화인들은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관심의 흥미를 다시 끌어당기려는 노력과 영화계의 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영화 부산지부』가 중심이 된 「남도순회영화상영회」, 국제신보사의 「전국신인배우선발대회」, 지역 영화인들에 의한 영화인 양성기반의 설립, 각종 영화관련 강연회 개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1976년 6월 15일에 부산 개항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아시아영화제」가 개최되며 작품상에 해당하는 「국제우호증진상」에 한국의 『천산공작』이 수상한 사실이다.

그러나 50년대 이후 부산의 영화비평과 관객운동의 전인지 역할을 해왔던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활동은 70년대 들어서 크게 정체되면서 그 활동도

28) 제3대 영화 부산지부장 김명수의 주도로 실시된 이 행사는 영화로부터 소비된 경남일대의 섬주민들에게 우수한 한국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주는 한편 각종 문화를 수집 전달하는 일도 함께 하여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는 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으나, 80년대 들어 교통의 발달로 섬과 도시의 교류가 왕래해지면서 자 본으로 증가되었다.

29) 1977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영화감독 김사경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행사. 1978년 제1회 대회 때에는 전국에서 1천여명의 자원가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룬다. 이때 선발된 영화제는 이후 김호선 감독의 「죽음보다 향은 꽃」에 주연으로 출 연하기도 한다. 1979년 제2회는 『주간국제』가 주최한다. 그러나 국영화 제작여건이 모먼치지 않은 지방에서의 배우선발대회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어 2회를 맺고 중지되고 말았다.

30) 김사경 씨는 1977년 「부산정보영화연구소」를 개설하여 소형영화 제작을 통한 정보영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동극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영화교육에 나서 80년대까지 그 활동을 이어가 있다.
자연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말았다. 70년대의 영화계 붕괴과 더불어 주요 회원들이 영화평론 일산을 떠나며 따라 철저히 분개된 부산영화계 70년대 초 김경동, 노용구, 한인수, 손해석, 김동규 등 학계와 방송계 인사들로 새로운 탈바꿈하지만 74년 이후 또다시 활동이 중단되는 등 부진을 겪을 듯하다가 80년대 이후에서 다시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처럼 이 시기는 60년대와 비교할 때 극장가와 비평가, 연구 활동 등은 첨단화된 반면에 소형영화 제작 활동은 활성화됨으로써 부산영화계에 창작의 가능성을 새로운 문화들으르 갖춘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6. 단편영화의 활성화와 연극운동의 부흥 (1980년대)

80년대의 부산영화계는 오랜 첫째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다. 1983년 부산 산업대학(현 경성대학교)에 연극영화과가 개설되고,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영화교육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70년대에 채용 끝난 소형영화 운동이 「한국단편영화제」의 창설 등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이용판, 전영준, 김지석, 오석근 등 일군의 젊은 영화인들이 비평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반 영화운동이 새롭게 부흥한 것이다.


31) 현재 영화전문 교수진으로는 주윤탁, 전수원, 김정희 등이 있다.
한편 경상전문대학의 방송연예과에서도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1980년부터 영화 교육을 실시, 김시광, 지창인 등이 임직에 실습과 이론을 담당한 바 있다.
부산지부에 의해 1980년 12월에 제정된 「한국단편영화제」가 운영됨으로써 더욱 활발해진다. 전국 소형영화인을 대상으로 ‘창작단편영화’를 표방하였던 이 영화제는 8mm와 16mm 그리고 흑백화면과 색채화면, 무성과 유성 등의 활영기체, 필름의 규격, 발성형식 등을 다양화하여, 소형영화의 장점과 예술성에 목표를 두어 새로운 소형영화의 전문화를 촉진시킨다.30)

그리고 이 시대에 특기할 만한 영화제작자는 1981년 부산문화방송의 인기 라디오 DJ였던 배경호의 일대기를 기초로 감독이 부산에서 기획·제작한 일과 지정언 감독의 테마작품 〈천사 눈에 찌든다〉가 역시 부산에서 기획·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부산문화방송의 프로듀서 김영화와 김사경 감독의 적극적인 제작지원에 의해 완성된 〈열려는 몰래내의 인기가요와 함께 전국적인 반응을 얻고 특히 부산에서는 홍행에도 성과를 올렸다.31〉 〈천사 눈에 찌든다〉는 부산의 한 실업가의 출자로 지정언 감독의 테마와 부산출신의 영화학도인 오석근이 조감독으로 태워하는 게이가 되기도 했다.

한편, 민중문화운동의 하나로 1988년 결성된 짐은 영화제작자 모임 『영화심 꽃다림』은 부산대 학생으로 독재에 항거, 부산지부로 한 양영진문을 그린 〈신의대못 넘어 살아〉를 중핵 극영화의 형식으로 제작함으로써 비제도권의 독립영화 운동을 최초로 시도했으며, 89년에는 서울 장세례 『장산곳에』의 〈오! 꽃의 나라〉를 부산에 상영하는 등 민중영화의 뿌리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1980년대는 비평, 연구, 감상회 등의 영화운동이 새롭게 부흥한 시기이기도 하다.

70년대에 활동이 지지부진했던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1983년 12월

30) 초기에는 동화인들의 8mm와 16mm의 혼합출품에 비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로 16mm 제작에 전념하는 영화제작 대학생이나 젊은 단편영화 연구자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재건총회를 열어 김사경씨를 회장으로 김동규, 주윤탁, 혜은, 이용완, 김지식씨 등을 회원으로 하여 활동을 재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4년 4월에는 부산시네마클럽이 창립되어 부산지역의 첫 영화연구가 매출의 산입역을 맡았다. 주로 대학영화서를 출간의 김지식, 오석근, 박수경 등 10여 명의 회원들이 매달 편집을 열고,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과 함께 단편영화 제작 및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이 가운데 오석근은 〈어느 자살자에 대한 보고서〉로 『단편영화제』우수상을 수상하고, 1990년 〈네 티켓으로 해리〉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으며, 김지식은 『영화언어』를 발간, 영화비평이 전년도 현재 부산예술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섬네일센터가 198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요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2년 창립된 부산섬네일센터의 일반 영화 예호가를 중심으로 영화문화에 대한 이해와 영화제작을 넓힌다는 취지 아래, 『섬네일센터』의 발행과 각종 스탠드시회 및 자료권을 풍부히 열어 부산 영화문화의 다양화에 일조를 한다.

1986년 11월에는 예술원과 부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유한목 감독 초청 강연회를 열어 『제독영화시대와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가지고, 같은 시기에 『영화진흥공사』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공동으로 “지방영화문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1989년 5월에는 부산의 첫 영화학자들이 모여 본격적인 학습활동과 영화문화운동을 기획하기 위한 취지로 최초의 학술단체인 『한국영화연구소』를 창립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6월에는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와 공

34) 김사경 『부산에서의 극영화』, 주윤탁 『영화관의 문화적 기능』, 이용완 『영화교육과 영화문화』, 이승구 『외국의 지방영화문화』 등의 발표와 영화평론가 허창, 부산극장협의회 전무 산유대 등이 참여 토론을 통해 부산에서의 극영화 제작의 가능성과 영화관의 문화적 기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35) 경성대학교 교수 이용완(현 중앙대학교 교수)과 서울에서 출생하였던 전영준, 이충현, 신익호 등과 부산 출신의 오석근, 김지식 등
동으로 중국·대만·홍콩 등을 잇는『3중국영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여름영화학교를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 시기 부산극장가의 분위기는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했다. 이와 함께 극장의 수도 담보상태를 멋지게 1976년 51개소이던 것이 12년이 지난 1987년에는 57개소로 불과 6개소 정도만이 늘어난 것으로 접지했다. 이같은 현상은 80년대의 경작된 사회문화기에 독립영화 시대가 도래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극장연합회 대장극장 위주의 경영방침에서 벗어나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극장의 개설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동화, 태화, 푸른극장이 80년대 초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가남·현대·복성·문화극장 등이 잇따라 개관, 1987년 무렵에는 소극장이 22개로 기존극장 21개소를 압도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들 소극장은 기존 대극장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극장연합회 가입이 제한되는 등 감동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소극장들은 그러나 90년대 들어 대극장들이 현대적 시설로 재앙촉적으로써 다시 소멸된다.

그러던 중 1986년 12월 제6차 영화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수출협회의 영화시장 개방시책에 의한 국내 영화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어 1988년 1월에는 한국의 20세기 폭스사와 UIP지사가 활동을 개시하게 되고, 그해 9월 UIP 럭셔리영화『위험한 정사』의 국내상영은 신호탄으로 적폐영화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이같은 적폐영화의 문세는 부산의 극장가도 휩쓸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산시내 대부분의 개봉극장이 적폐영화들을 상영하기 시작했으며, 지역영화단체와 대학영화모임의 개봉운동과 시위도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하여『위험한 정사』,『레인 맨』 등 허리우드 오락물, 홍콩 폭력물들이 대부분 부산 극장가를 휩쓸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1980년대 부산영화계는 극장가 쇠퇴한 반면, 소형·단편영화 제작이 매우 활성화되고, 더불어 제반 영화운동까지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치 부산영화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듯하다.
Ⅲ. 동시대 부산영화의 현황 (1990∼1997현재)

1990년대 초기의 부산영화계는 크게 보면서 80년대 영화계의 흐름과 질적으론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몇몇 비디오 영화 외에는 여전히 극영화의 제작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으며, 영화계의 움직임도 80년대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의미있는 심포지엄이나 영화제 등의 활동과 영화관계 연구서적의 출간이 이뤄지기도 하면서 점차 활기를 이기 시작하여,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부산영화의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1996년에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뤄지고 이어 1997년에도 발전적으로 제2회가 개최됨으로써 부산은 한국영화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는 폭기를 이루어낸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90년대 전반기의 영화계


부산영화계의 새로운 활력으로 도색된 '독립영화 프로덕션' 제작 가능성을 타진하는 심포지엄36)이 1990년 3월에 마련되고, 또 한해 김지석·오석

36) 여기서 김시경 감독은 '외화적배로 인해 한국영화의 제작여건이 악화된 시점에서 독립프로덕션의 제작 활동이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주은하 경성대학교 교수도 '독립영화는 제도권영화에 대한 대항영화 형식으로 한국영화의 미래성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부산영화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강순대씨 등 80년대 대학영화사를 출신인 폴은 영화학자들이 의해 독립 프리פק션의 결정적인 반작용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부산의 극장가도 서울 동지와 마찬가지로 직배영화에 의해 장악 된다. UIP의 『사랑과 영혼』이 공연의 히트를 기록한 것을 필두로 『다이하드』, 『양들의 침묵』, 『원조적 본능』 따위의 직배영화들이 개봉한을 점령하고 있다.

2. 예술영화 수용의 확대

그러나 한편 이러한 상업영화에 대항하는 예술영화 동호회의 움직임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어간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
체는『세네마베르 1/24』(대표 김성남)이다. 이 단체는 프랑스문화원 내의『세네플럼』이라는 연구모임이 중심이 되어 1993년 1월 극장을 개관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50여명의 회원과 5명의 운영진으로 구성되어 매주 정기적인 ‘예술영화 합병회’와 ‘페미니즘영화제’, ‘일본영화제’, ‘ сентもり 센던스 센던스’ 등의 규격화된 ‘대외영화제’들을 개최하는 한편, 수차례 격쳐 영화학교를 개설하는 등 수준있는 영화 감상과 비평, 그리고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을 수 있는 이 단체만의 특성으로 영화 비디오테마, 영화관련 서적 및 자료 등을 수집하여 회원제로 보급·운영하는 영화자료실의 성적을 듬 수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부산의 고급 관객들의 확보와 영화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어진 고품은 간과할 수 없으며, 부산 유일의 예술영화관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어 그 의미가 각별하다.


‘가톨릭 센터’에서는 격주 수요일마다 ‘수요영화감상회’를 여는 한편, 강연과 토토론으로 구성된 포럼을 매달 열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포럼에 대한 호응이 좋았지만 점점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부산문화센터’는 1996년 6월부터 영화 상영을 시작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경기형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영화음악과 세상보기”라는 제목으로 매주 자유토론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부산영화 연합’이나 각종 동호회원들이 참가하여 시사회 등의 행사 위주로 활동 중이다.

‘프랑스문화원’은 내 예술영화관은 아니더라도 매일 프랑스 영화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주 관람객이고 일반인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지만, 때때로 페미니즘영화제를 기획하기도 한다.

라이브 음악으로 출발한 복합문화공간『반』은 1997년 9월 서면에 자
리참했다. 이번달부터 종근문안부었던 할머니를 그림 〈낮은 목소리 2〉를 시작으로 11월에 〈단편 애니메이션 리플레이〉를 기획하는 등 앞으로 매달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노영화체는 ‘대중문화의 획일성에 반기를 들여 다원성을 추구하는 것이 ‘반’의 정신’이라며 ‘반’은 환경 도와는 무관하게 지역의 소수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영화공간으로는 조성대 콘서트홀이 있는데, ‘부산 단편 영화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했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개관한 정보관내에 소극장에서는 지난 22일부터 5일간 〈데마영화제〉를 열었다.

3.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PIFF’의 개최

1996년 9월에 열린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무엇보다도 부산영화사에 걸이 빚는 업적을 세기고 있다. 한국영화계의 오랜 꿈이었던 국제영화제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은 황홀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영화 100년사에 걸이 넘을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문경수 시장)와 전람위원회(위원장 김동호)에 의해 주최·주관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첫째, 비장정부분을 주축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장벽을 뛰어 넘어 다양한 분야의 수준높은 작품을 선택 초청할 수 있게 되고 둘째,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화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격동하는 아시아 지역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량있는 감독, 문제제를 찾아내어 공개하고 격려하는 데 힘

--- 350 ---
쓰며 셋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체계 있게 정리하고 평가해서 이를 급증적으로 소개하는 데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제 1회 국제영화제는 당해 '칸네 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비밀과 거짓말〉(마이크 리, 프랑스)을 개막작으로 하여, 다음의 7개 부문을 선정, 30여개국의 170여편의 영화를 열연하였다.

1) 아시아 영화의 창 부문

최근 세계영화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의 각국에서 만들어진 최신작과 우수작이 소개되는 부문으로 아시아의 10개국 18편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아시아 중견감독들의 영화세계를 일깨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이 부문에서 소개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풍월(風月)〉(천 카이거, 중국), 〈달의 졸〉(가렌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방화범(放火犯)〉(우-웨이 린, 하시바미, 말레이지아), 〈불속의 8월〉(이시 소고, 일본), 〈동궁사공(東宮西宮)〉(정유안, 중국), 〈축하합니다 /에도합니다〉(레즈 이즈미, 일본), 〈프로 콘템포러세안 아야기〉(조엘 라방간, 필리핀), 〈바다로 가는 벤잡〉(자누 마루아, 인도), 〈여행〉(알리레자 라이시안, 이란), 〈남자 이야기〉(아두로 고말라크라슈나, 인도), 〈항수〉(영남진, 베트남), 〈홍시〉(왕동, 타이완), 〈붉은 장미 화 장미〉(스테리 햄, 홍콩), 〈참리는 남자〉(오구리 코헤이, 일본), 〈아들들〉(강유안, 중국), 〈호도 묘(슈 케이, 홍콩), 〈동경의 주먹〉(스카모토 신야, 일본), 〈오늘밤 아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심바야 장, 태국)

2) 월드 시네마 부문

이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제작된 '비아시아권' 영화로서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했거나 이에 못지 않은 수준의 화제작, 그리고 주목할 만한
감독들의 대표작들이 선보인다.

〈제8요일〉(자오 반 도마엘, 프랑스), 〈한도나아스 라인〉(마릴린 고리스, 네덜란드), 〈브레이킹 더 페이브〉(라스 폰 트리에, 멕시코/프랑스), 〈휘선의 태양〉(니키타 미할코프, 러시아/프랑스), 〈크레타〉(데 이넷 크로텐비르크, 미국), 〈네드랜드〉(짐 자우어, 미국), 〈네사스는 환상 속으로〉(힐 샤엘, 미국), 〈비밀의 옷〉(페드로 알모도바르, 스페인/프랑스), 〈세비〉(세임스 맨필드, 미국), 〈중요〉(마피유 카소비츠, 프랑스), 〈안계속의 공정〉(세르 알강로플로스, 브라질), 〈크라시스의 희수〉(세르게이 보드로프, 카자흐스탄/러시아), 〈위선적 영웅〉(자크 오디아르 프랑스), 〈여름이야기〉(에리크 로메르, 프랑스), 〈속리시스의 직진〉(데오 알강로플로스, 프랑스), 〈필립 두 동화수〉(프랑스)

3) 한국영화 파노라마 부문

지난 1년간 한국영화의 우수작 및 신작들을 소개하는 부문이다.

〈늑대〉(임권덕), 〈내일로 향하는 길〉(박재호), 〈매일 69〉(이정국), 〈매치가 우주에 찰진 날〉(홍상수), 〈학생부군신위〉(박철수), 〈귀전도〉(이정영), 〈은행나무철대〉(강해규), 〈개 관한 남의 오후〉(이민용), 〈경 금 스토리〉(김홍준), 〈그물안의 세상〉(임종계), 〈비보스트리〉(배창호), 〈꽃잎〉(장신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박광수), 〈지독한 사랑〉(이명세), 〈부소의 빨처럼 흔자서 가라〉(오영철)

4) 뉴기니즈 부문

여러분 제작 한두 해에서 새로운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 소개되는 부문으로 아시아 8개국 13편이 소개된다. 또한 이 부문에는 신인감독들의 차기 작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시상제도가 마련되며, ‘최우수 아시아 신인 작가상’과 ‘넷째상’이 수여된다.
5) 와이드 엔글 부문

영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애니메이션, 기록영화를 소개하는 부문으로, 총 23개의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단편영화 작가들의 차기 작품 제작 지원을 위해 '운상상'(최우수 한국단편영화상)과 '선정상'(해외단편영화상)이 각 1만달러의 상금과 함께 수여되며, 각 수상작은 제작사날 상영된다.

(홈리스)(장기철), (바리조존)(후미키와타나베, 일본), (카자노 카보디아)(양 K, 대만)

해외 단편 경쟁부문 1: 〈2월 15일〉(템 테브, 영국), 〈바법〉(마르셀 이란나, 폼페이), 〈문 여행〉(프랑수아 폰도, 프랑스), 〈카타리나 커플로스트, 폰란드), 〈비슷한국〉(디 킹, 홍콩), 〈사뿐 다섯에 홀로〉(레미안 오도влек, 아일랜드), 〈대의경계〉(유디 벤나디, 이스라엘)

해외 단편 경쟁부문 2: 〈가자의 도착〉(안드리아 셀레즈나코프, 러시아), 〈아침에 깨어나기〉(마르크-앙리 반페르고, 벨기에), 〈해피 엔딩〉(바리 수하라미, 인도네시아), 〈춘〉(타카시 이토, 일본), 〈조용한 항구〉(마리우스 말레, 폴란드), 〈여인(《C. 세어 신, 대만)〉

한국 단편 경쟁부문 1: 〈오빠 미〉(임창재), 〈자살파티〉(이서균), 〈내 안에 우는 바람〉(전수일), 〈추억〉(민용근)

한국 단편 경쟁부문 2: 〈K개의 자국적인 하루〉(이가은), 〈공사중〉

- 353 -
(장원구), 〈배〉(이정활동), 〈영장 이야기〉(곽경택), 〈생일기념일〉(변혁),
〈다우검〉(김윤태)
〈셀프로아드 콜로라스〉(캄 엘스테인, 제트리 프리드만, 미국)
하늘의 날 : 〈5.56mm〉(구성주), 〈연인〉(이성건), 〈무서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홍현숙)
망의 날 : 〈한국 영화 센터〉(장선주), 〈저하월〉(문원철), 〈표류〉(유상곤),
〈오전〉(정동희), 〈순환〉(전승일)
바다의 날 : 〈낮으로 만발해서는〉(이수성), 〈별여쁜 성자〉(나기용),
〈라-발전소, 불가능, 시란봉판〉(이관용), 〈말에게 물어보림〉(전수일),
〈순정시대〉(이지상), 〈센트로피 2〉(장우진)
인간의 날 : 〈해고사〉(이지영), 〈여머니의 보라빛 수건〉(김태일), 〈공작가등대〉(아모우 오시이, 일본)
사회의 응시 : 〈환상속의 그대-한 일탈자의 변형일지〉(조유철), 〈버거 일기-세상로〉(정형제), 〈역에서 역으로〉(아이니 캐드가르, 이란/오스
트랄리아), 〈나날의 어린이〉(모노이 다투바스, 카리린), 〈여행〉(주안
폴라, 칼리핀), 〈당신이 원하는 것은 ! ?〉(차 키립, 홍문), 〈제스전사와 사무라이〉(닉 디아가로, 칼리핀)
인도 니구멘터리 : 〈장작의 마술〉(리타바 가타), 〈여정의 노래〉(돈단
크로드하디)
일본 단편 영화선 : 〈밀레라〉(카이토 우타가와, 아츠코 무로부시), 〈달
리기〉(토모유키 투투야), 〈초메인〉(카이로 우타가와), 〈한방종〉(덴
가이 아야노)
〈마이크로 코스모스〉(클로드 래리드차니, 마리페르노, 프랑스)
〈단편 무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변영주)
〈파일럿 스탈리오 결정선〉(파일럿 스탈리오 제작, 이시아) : 〈소〉(알
렉산다 페트로프)의 14편
〈견여야 할 경〉(김덕철, 모리 아스유끼, 일본)
〈색 히드슨의 가정영화〉(마크 헤퍼토, 미국)
6) 스펙셜 프로그램 부문
개·폐막 작품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 작품 7편이 4,000석 규모의 특설 아외상영장(수영 오토평기장 내)에서 상영되었다.

〈에드먼드 결혼식(할레스&그로미)〉(닉 콜스, 폴리 로드, 리차드 고리스포프스키, 제프 뉴워트, 영국), 〈박봉근 가출사건(김태균, 한국)〉
〈파트리(조엘 로빈, 영국), 〈라스트 린 스탠턴(월터 허, 미국), 〈가족〉(가족히로 오모토, 일본), 〈상해판(서무, 홍콩), 〈상하이 트라이어드〉(장이보, 중국)

7) 한국영화 최고전 부문
60년대의 황금기와 70년대의 침체기를 보낸 한국영화가 80년대 최정의 불을 닦고 활기차고 새로운 호름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에 90년대의 황금기를 예고하는 지난 15년간의 대표적 17편을 포아 소개하고 있다.

〈반다라(일본), 〈관제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김유진), 〈그룹 두리치림(박광수), 〈바보선언(이장호), 〈첫사랑(이명세), 〈첫사랑(이두용), 〈한 종의 시간 속에서(백일성), 〈월리우드 키드의 상(정지영), 〈나그네는 길에서도 하지 않는다(이장호), 〈기간 우리 집은 낭(배창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박종원), 〈세상밖으로(여객동), 〈경마장 가는 길(장서우), 〈이년체(김덕택), 〈두 여자 이야기(이장근), 〈301,302(박찬수), 〈달마가 동쪽으로 간 카ftime?〉(배용권)
이상의 영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부산에 소재한 『한국영화자료연구원』 (원장 홍영철) 주관의 『한국영화 사료전시회』, 박장수, 오쿠리 고헤이 등 40여명의 감독과 함께한 『감독과 토론의 장』, 『세미나』와 『스페셜 파티』 등의 부대행사들이 성대하게 치러져 영화계의 의미를 한층 부각시켰다.

이상과 같이 열린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산국제영화제의 탄생은 바로 아시아 및 세계 영화의 흐름을 우리 나라에서 확인한다는 것과 한국 영화의 세계화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결과는 한국 및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도출되었다. 해외 영화인들의 평가는 「부산국제영화제는 규모에서는 상해국제영화제/동경국제영화제와 같이 부상했으며, 질적인 면에서는 트로트/홍콩국제영화제와 같은 전지향과 순수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다.

둘째, 한국영화의 현재를 세계 영화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비롯하여 세계 영화의 현상을 국외 영화계 참관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는 영화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세계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목격하려는 관객들의 의지는 9일 동안 연 인원 18만여명의 관람으로 그 성과를 보여주었고, 할리우드나 홍콩영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시아권 영화를 비롯하여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에도 관람객이 몰리므로써 관객의 저변 확대를 제시할 수 있는

38) 『한국독립영화 최고, 그 영향과 전망』(9. 15, 국립극장), 『제47회 영화』(9. 16, 부산협회), 『프리미어 뉴스〉 브리핑(9. 17, 로열협회), 『디지털 영화』(9. 18, 파라다이스협회),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9. 20, 부산협회)

39) 삼성파티(9. 14, 하얏트호텔, 삼성 주최), 송광나무성대 파티(9. 15, 부산협회, 셰어2000 주최), 동아수출공사 파티(9. 16, 부산협회), 임진각 파티(9. 17, 로열협회, 사네마키비스타 주최), 동월 파티(9. 18, 파라다이스 협회, 제일제당 주최), 박성곤 가출사건 파티(9. 19, 파라다이스협회, 영화사상 주최)
제기가 되었다.
그리고 각 부문별 사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뉴욕천사(외우수 아시아 신인작가상) - 〈무산의 바구름〉(정영)
② 와이드 엔글(외우수 한국 및 해외 단편영화상)
운광상 - 〈내 안에 우는 바람〉(전수일)
선재상 - 〈기차의 도착〉(안드레아 젤렌차코프)
③ 넷째상(지역 영화비평가 상) - 〈세진구〉(임순례)
그 중 부산 제작 작품인 〈내 안에 우는 바람〉은 그 후 '97 전서家都知道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공식 초청됨으로써 부산영화의 가능성을 실제로 증명하면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

4.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1997년 10월 10일(금)~10월 18일(토). 9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는 ①다양한 장르와 지역의 영화를 통해 세계 영화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을 마련, ②세계의 작가들이 저니 새로운 시각과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영화토론의 열린 마당을 전 개시킴으로써 영화인과 관객의 호흡을 통해 영상문화의 자리매김에 기여,
③아시아 영화를 조명하며 아시아 영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 ④세계 영화계에서의 한국영화의 위상을 능동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 ⑤한국영화의 개성을 형성하는 세움터로써 제작 · 배급여건을

40) 심사위원장: 임문백, 위원: 세르게이 보도로프, 피에르 라시앙, 에리카 그레질, 장주아
41) 심사위원장: 퇴스 베시아, 위원: 안성기, 수 마에다
42) 심사위원장: 강수연, 위원: 크리스 베리, 박영주
43) 이 시점은 「아시아영화의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Network for Promotion of Asian Cinema」의 회원들이 신경을 써어 수여하는 상으로서, 대표 심사위원은 아두나 바슈다프, 자크 폴슨, 펠립 펄로 등이다.

- 357 -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도움으로 역할, ⑧'98 부산국제영화제부터 한국 및 아시아의 작가들을 지원하는 인디영화 프리 프로덕션 지원을 위한 마켓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즉, 제2회 PIFF는 1회 때의 기본적인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외에도 아시아의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함으로써 경제적 입각과 화폐를 무릎쓰며 영화적·문화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아시아 영화를 두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PIFF는 1998년에 작품들과 투자자들을 한데 모이게 함으로써 작품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마켓의 성격을 가진 Pusan Promotion Plan(PPP)을 출범시켰다. 이는 총 자금이 필요한 아시아의 인디펜던트 프로젝트들과 세계 각지의 제원을 한데 모아주는 'Special Film Co-financing and Coproduction Market'이 바로 PPP의 것이다. '로테르담영화 제'에서 매년 개최하는 Coproduction market의 사례를 모델로 한 PPP는 아직 제작전이나 제작단계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아시아의 프로듀서 및 감독들을 초청하여 투자자, 배급업자, TV 방송국의 영화바이어, 그 외의 다른 제원들과의 접촉을 추천, 세미나와 미팅, 포럼회, 파티 등을 통해서 이들간의 만남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1998년에 열린 PPP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약 10편의 프로젝트를 선정, 초청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아시아와 북미·유럽 등지로부터 주요 투자자와 바이어들이 초청되며, 영화를 극장 배급업자들 및 TV 구매자들에게 사전판매하고 제작 전에 동등한 거래 및 공동제작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프로듀서와 감독에게 제공하고, 또한 바이어 및 투자자들이 아시아의 영화 인력을 지원하도록 장려, 교육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44)

44) 1998년 PPP의 출범에 앞서 1997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독일세미나 'PPP 97.'이 열렸다. 세미나 세미나와 오프닝 리셉션, 바공식 회합 및 토론같은 스페셜

- 358 -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장, 뉴캐스틀, 와이드 앵글, 월드 시네마, 코리안 파노라마, 오픈 시네마(아의상영), 회고전 등 총 7개 부분으로 나뉘 진행되었다.

그 중 특별 제2회 PIFF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문인 회고전은 3가지 역량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즉, 7월 홍콩의 중국반란에 맞춰 홍콩영화를 집중조명하는 홍콩영화 특별전을 비롯, 아시아 각국 영화작가의 제작을 살펴볼 아시아의 발전영화 회고전, 독특한 스타일러스트로서 국내외에 비교적 덜 알려진 김기영 감독의 회고전이 각각 준비되었다. 또 하나 정성을 기울인 기획은 〈아시아 초창기 영화 특별전〉으로 인도, 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초창기 영화 21편을 발굴해 상영했다. 이는 아시아 영화의 과거사를 더듬어 볼 목적으로써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영화의 장 부문

이번에 이루어진 〈PPP 97〉은 "영화 〈차이나스 박스〉 사례 연구", "아시아 영화와 해외시장", "아시아 영화제작을 위한 기금(funding) 프로그램", "아시아 영화와 공동제작" 등의 주제로 진행된 세션을 가졌다. 특히 기자들도 많은 힘을 보였던 PPP는 1998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 도입한 프리미엄스테이지셔를 대비해 주제와 관련한 이처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관객들과 연예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 영향력이 보다 확산될 것이라 생각된다.

45) 지난해 〈도서구간〉이 큰 호응을 얻었던 김기영 감독은 60년대 유명한, 신흥국 감독 등 대가들과 한국영화 축중인을 함께 했지만 진정한 도약과는 아시아 뮤지컬의 '원요지'라는 오로지 대중의 이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리를 얻길 기대하는 바람에 분명한 예술가로 90년대에 못마르지 않았다. 예선과 루렌스가 주요로 이루어진 그 당시 김기영은 정조한 사이로 스릴러라는 장르를 개척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잃기는 못했으나 독특한 시각과 화면처리, 성적 억압에 시달리는 인간들의 심리 표사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우리 영화사에 유명한, 신흥국의 버금가는 영화 작가로 기록되고 있다.
2) 새로운 몸결 부문

- 초승달 이후 (Chang Wai-hung, 홍콩), 가변초인 (Arthur Chyu, 대한민국), 폭사 (Malay Bhattacharya, 인도), 펜 바 가라오케 (Pen-ek Ratanaruang, 태일랜드), 초록 불고기 (이창동, 한국), 또 다른 하루 (Satoki Kemmochi, 일본), 메이드 엔 홍콩 (Fruit Chan, 중국), 모범 선생 (박기용, 한국), 비밀의 화환 (Shinobu Yaguchi, 일본), 풍이비행기 (Farhad Mehranfar, 이란), 대안에 우는 바람 (전수일, 한국)

3) 한국영화 파노라마 부문

- 바라케이트 (윤은호), 미트 (김성수), 별하늘 (정지영), 설취 (정윤환), 야외 (김기덕), 절은 슬픔 (박지권), 남매 3 (송능한), 산부인과 (박철수), 나쁜 영화 (강선우), 3인조 (박찬욱)

4) 월드 시네마 부문

- 침묵을 넘어서 (Caroline Link, 독일), 형제 (Alexei Balabanov,
러시아, 〈위키의 형제들〉(Udayan Prasad, 영국), 〈일하는 여성〉(Mike Leigh, 영국), 〈실종의 연대기〉(Elia Suleiman, 팔레스타인/프랑스), 〈폴드 페버〉(Fridrik Thor Fridriksson, 아이슬란드), 〈검은 신혼객〉(Arturo Ripstein, 멕시코), 〈드레스〉(Alex Van Warmerdam, 네덜란드), 〈류나함〉(Abel Ferrara, 미국), 〈예루살렘〉(Bille August, 덴마크), 〈정크 매일〉(Pal Sletaune, 노르웨이), 〈랜시스 시티〉(Robert Altman, 미국), 〈나의 창미일 인생〉(Alain Berliner, 프랑스/벨기에/영국), 〈아녀니와 아들〉(Alexandr Sokurov, 독일/러시아), 〈그림속의 세계〉(Martin Sulek, 슬로바키아), 〈파렉트 셰랍〉(Ademir Kenovic, 보스니아/프랑스), 〈악속〉(Luc & Jean-Pierre Dardenne, 벨기에), 〈여 느 아녀니의 아들〉(Terry George, 영국), 〈일요일〉(Jonathan Nobisier, 미국), 〈탱고레슨〉(Sally Potter, 영국), 〈레스턴〉(Manuel Poirier, 프랑스)

5) 와이드 영글 부문

한국단편과 다큐멘터리 1 : 〈생강〉, 〈تعبت في اذهانني〉, 〈진열〉, 〈낙지〉, 〈우 리 햇살 사투리〉
한국단편과 다큐멘터리 2 : 〈팡다탄의 꼬마〉, 〈귀대방향〉, 〈장미〉, 〈스윙다이어〉, 〈착한 비디오〉
한국단편과 다큐멘터리 3 : 〈자유〉(어귀동), 〈모험초도로〉(고창수), 〈레드 헌트〉(조성봉)
해외단편 1 : 〈바른 세 살의 브레인〉, 〈행복하셔요〉, 〈플론〉, 〈모자 쓴 남자〉
해외단편 2 : 〈통나무를 겪던 인생 산성〉, 〈위터 팬크〉, 〈포항지 디 자인〉, 〈모노크롬 헤드〉, 〈음식의 향연〉, 〈슬리퍼 가이〉, 〈초조의 카페〉
아시아 다큐멘터리 1 : 〈방향〉(Hsu Hsiao-Ming, 태국)
아시아 다큐멘터리 2 : 〈나지아네 아울〉(Seiichi MOtahashi, 일본)
이시야 다 큐브리티리 3: ‘나는 전쟁을 먹냈다’(Prom Mesar, 캄보디아),
‘그물 속의 영상’(Zakir Hossain Raja, 방글라데시), ‘setItem 골든 하
드보일드’(Tsunoshi Shuhama, 일본)
이시야 다 큐브리티리 4: ‘고독의 초상’(Junko Miura, 일본), ‘나, 다른
사람과 독일은 소녀’(Cheeng Sawanny, 캄보디아)
이시야 다 큐브리티리 5: ‘네온의 여신’(Yu Lik Wai, 홍콩), ‘여린 가
수’(Nan Triveni Achnas, 인도네시아), ‘아저씨’(Arvind Sinha, 인도)
이시야 다 큐브리티리 6: ‘바쿠오 남가 16호’(Duan Jinchuan, 중국),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Dana Ranga, 독일), ‘拿은 목소리 2’(변영주,
한국), ‘기억의 풍경’(Jose Araujo, 브라질), ‘방망이에서 중심으로’(독
영영화에 대한 특별한 사연) (홍영숙, 한국), ‘티벳의 소름조개’ (Ulrike
Koch, 스위스), ‘명성, 그 6월의 기록’ (김두원, 한국)
기장과의 만남 1: ‘하우 사오시엔의 초상’(Olivier Assayas, 대한
기장과의 만남 2: ‘베리유의 목소리’ (Gunmar Bergdahl, 스웨덴)
‘별여백을 향한다’ (황철민, 독일)
‘솔직 헤이’ (Mitsuhiro Mihara, 일본)
‘폴란드의 개’ (Yoshio Kuroda, 일본)
‘원숭이의 달🌳’, ‘허수아비’, ‘여우자리’, ‘열두마리 모기와 다섯
사람’

6) 오픈 시네마 부문

‘번’ (Tim Bevan, 영국), ‘칼 랜드’ (James Mangold, 미국), ‘화장
뿐만’ (Derek Chiu, 홍콩), ‘씨아이제인’ (Ridly Scott, 미국), ‘머니
토토’ (Brett Ratner, 미국), ‘원 나잇 스탠드’ (Mike Figgis, 미국),
‘아연광대’ (Xie Jin, 홍콩), ‘합체 속 추심’ (Masayuki Suo, 일
본), ‘억수당’ (박경택, 한국)
7) 최고진 부문

김기영 감독 최고진: 〈유식동물〉, 〈하녀〉, 〈총녀〉, 〈이어도〉, 〈옥체의 악습〉, 〈살인나비를 훔는 여자〉, 〈화녀82〉, 〈망산도〉
홍콩영화 특별최고진: 〈가을날의 동화〉, 〈영웅본색〉, 〈천녀유혹〉, 〈외 팔이 복사〉, 〈프로젝트 에어〉, 〈당산대형〉, 〈환영속〉, 〈아미정천〉, 〈사수유년〉, 〈전도수한〉, 〈오가기〉, 〈혈나〉, 〈시간은 훌쩍가고〉, 〈변함없는 나의 홍경〉, 〈베이트 인 홍콩〉

8) 초기 아시아 영화 특별전

중국: 〈노동자의 사랑〉(Zhang Shichuan), 〈봄부〉(Cheng Bu Gao)
인도: 〈바다 프롤라드〉, 〈백돌쟁기〉, 〈갈리아 마르단〉, 〈스리브리슈나 진아〉, 〈아시아의 빗〉, 〈마르탄다바르마〉, 〈라자 하리반드라〉
인도네시아: 〈하늘과 흰 사자〉, 〈세계의 이름을 가진 영화인〉
일본: 〈호걸 카라야마〉, 〈춘신정〉, 〈일본남극탐험〉
한국: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주요 마을들〉, 〈순종황제 인산숙의〉, 〈경성〉, 〈조선의 축산업〉, 〈처형부〉, 〈양령부〉

이상의 영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PIFF 광장 선포식, 유휴 영화인들과 관객의 대화의 장이 마련된 "긴이루대", 한국 독립 영화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었던 "독립영화 사료 전시회", 아시아 영화의 진황을 위한 "세미나" 등이 함께 이루어져 영화제의 의의를 더욱 부각

46) 개막식에 앞서 문정수 부산시장 등 많은 영화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남포동 극장소에서 PIFF 광장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 선포식의 하이라이트는 솔플크기 손바닥 모양의 동판에 새겨져 영원히 스타의 거리에 남게 되는 Hand Printing 이었는데 첫번째 핸드 프린팅의 영광은 〈차이나즈 박스〉의 감독 팽인황과 주연배우 제레미 아이언스에게 주어졌다.
시켰다.

그리고 제2회 PIFF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뉴욕 크리스 상 : 캐피톨 신인상 (박기용)
②옵라상 : 청년, 그 6일간의 기록 (김동진)
③심천상 : 티빗의 소금장수 (울리케 코호)
④넷맥상 : 나렌 영화 (장선우), 접속 (강윤현)
⑤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 베이드 인 홍콩 (프루트 셀)

9일 동안 33개국 165편의 영화가 출품된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관객들이 1회 때의 2배가 넘는 3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무려 18 만여명의 관객들이 몰려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로 몽드시〉 (97.10.22)가 “장자 아시아 영화의 독자적 중심자가 되고자 하는 부산의 야망을 확인할 수 있다”고나,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가을에 걷어난 영화제지만, 아시아 독립영화의 거점을 기치로 한 외국적 기회로 외국 영화관객들로부터 도쿄영화제를 능가하는 주목을 끌었다”고 평하고 있듯이, PIFF 광장에는 국제 영화제를 선언한 아시아 영화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세계 영화인들로부터 집중을 받기 시작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기두고 있는 성과는 대외적으로 세계의 영화관객들에 게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이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영상산업의 발전에 대한 계기와 자극을 준다는 점이다. 특히 제2회 PIFF의

48) 관객의 인기부재에 의해 신정된 최우수 외국독립영화상
대표적 성과로는 영화 감독과 대한 시각 제작 이용지원 프로그램인 PPP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모텔신인장》이 '98 베를린 영화제 영상부문, 로테르담 영화제, 센프란시스코 영화제 등에 초청되었고, 〈명성, 그리고 6일간의 기록〉 《번역에서 영상으로》 《낮은 목소리 2》 등도 '98 베를린 영화제 영상부문에 초청되었으며, 〈세계의 이름을 가진 영화인〉은 인도 폴바이 단편 및 단편영화제에 진출하게 되는 등, 다양한 해외영화제로부터 초청 받게 된 것도 놀라울 수 없는 성과이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할리우드 오락영화로 가을이 되었다고 했던 관객들의 영화 취향은 '즐거운 영화'로 치부되던 아시아 예술영화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해 '월드시네마' 부분이 열리지 않아 감적 강제를 보였던 데 비해, 올해의 예매 현황은 영화제 개막 전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아시아영화에 분명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큰 실수없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다불어 다음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남기기도 한다. 운영면에서 1회 때의 시행착오로 경험상아 큰 실수 없이 무난히 처리된 운영체계가 잠아가고 있지만, 초정 개시의 방한 취소, 예매 시스템의 미비, 저부 영사 실수 등 일부 운영 미숙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회에 적지 않아한 것으로 유통관객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개시 ID카드'의 발행 논쟁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영향력 있는 해외 개시와 언론인의 초정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일부 불상한 국내 ID카드 소지자들이 곳곳에서 망설이 잘랐기 때문이다. 또한 전용 시나리오 확보는 여러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가 전세계 어느 영화제보다 더가운 관객들의 수용 열기에 의해 2회 모두 성공적으로 치뤄지고써 부산은 한국영화의 변방에서 아시아 영화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부산영화사의 새 장은 바야흐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5. '97 부산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최

'부산국제영화제'에는 규모뿐만이 전부 비교도 안되지만 그 의미만큼은 결코 떠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엔진에서 창작실 '디지아트'의 주최로 1997년 8월 30~31일 아름다운 가로마리센터 소극장에서 열리 주목을 끌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세계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세계영화의 위세에 늘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는데(특히 부산에서 제작된 작품은 거의 전부한 실정), 그러나 부산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상업주의에 불과한 디즈니나 신정착성 독특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취에서 깨어난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의 젊은 미술가들이 독립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실험, 창작하여 영화제를 지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갸 общественно는 것이다.

'디지아트'는 김정화·이대구·문상호·허병환 등의 사양화를 종합한 절은 작가들이 1994년 말부터 모여, 새로운 창작방식을 통해 우리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예술성이 풍부한 실험형식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제작하는 한편, 예술적 작품을 위한 애니메이션 강좌도 열여 교육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들이 부산예술학교 만화예술과 학생들의 작품과 함께 '97 부산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출품한 애니메이션은 다음과 같다.

〈공무는 날〉(2분 20초 감독 : 김재화) - 일본 '96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초청상, '97 총관람화제 초청상명, 미국 '97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발 출품.
〈불나들〉(2분 24초, 감독 : 문상호) - 일본 '96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발 출품, 미국 '97 LA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발 출품.
〈사람들〉(3분 45초, 감독 : 김정화) - 캐나다 '96 오타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발 초청상, '97 총관람화제 초청상명, 미국 '98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발 출품.
부산영화사/45

이권 퍼스티발 출품.

영화 《 처음만약 》 (6분 20초, 감독 : 김상화) - 프랑스 '97 양시 국제 아나메이션 퍼스티발 출품, SICAF '97 출품.
영화 《여우》 (5분 12초, 감독 : 이태구) - '97 애니메이스포 출품, SICAF '97 출품.
영화 《 휴식 》 (3분 46초, 감독 : 문상호) - '97 애니메이스포 출품.
영화 《도시인》 (3분 56초, 감독 : 허명현) - '97 애니메이스포 본선 상영작, SICAF '97 출품.
영화 《undler》 (4분 23초, 감독 : 이태구)

* 이상 『디자이어』 제작 작품

영화 《 사이버 뮤직 》 (5분 20초, 감독 : 최우영) - '96 대한민국 만화영상대전 출품, 프랑스 '97 양시 국제 아나메이션 퍼스티발 출품.
영화 《물체의 구》 (4분 30초, 감독 : 장윤진) - '96 대한민국 만화영상대전 출품, 프랑스 '97 양시 국제 아나메이션 퍼스티발 출품, SICAF '97 출품.
영화 《여러가락 이야기》 (5분, 감독 : 김현주) - '96 대한민국 만화영상대전 우수상, SICAF '97 출품.
영화 《난 살다》 (4분 40초, 감독 : 이현숙) - '96 대한민국 만화영상대전 출품, SICAF '97 출품.
영화 《여면 야경》 (3분 20초, 감독 : 손춘영) - '96 대한민국 만화영상대전 출품, 프랑스 '97 양시 국제 아나메이션 퍼스티발 출품, SICAF '97 출품.
영화 《정부의 화신》 (5분 10초, 감독 : 황진성) - '96 대한민국 만화영상대전 출품, 프랑스 '97 양시 국제 아나메이션 퍼스티발 출품.
영화 《세연필》 (6분 40초, 감독 : 남정훈, 박영권, 김선경) - '97 애니메이스포 출품, SICAF '97 출품.
영화 《군고구마》 (6분 10초) - '97 애니메이스포 출품.
영화 《누렇이는 땀》 (4분 30초, 감독 : 김미정, 서미진, 민은비, 최윤정) - '97 애니메이스포 출품, SICAF '97 출품.

* 이상 부산예술학교 만화예술과 학생 작품

- 367 -
6. 부산 독립영화의 가능성 - 〈내 안에 우는 바람〉 3부작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동시대 부산영화계의 가장 경
시스러운 일은 단연 전수일10 감독의 독립영화 〈내 안에 우는 바람〉 3부작의
완성을 꿈을 수 있다.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영화를 완성하였다는 점
만으로도 우연 그 의외를 인정하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특히 2부 〈내 안에
우는 바람〉은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와이드영글부문에 참가되어
운상상 수상하는 한편, 그로부터 7개월 후 1997년 5월에 『97 감논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20되었다. 그리고 3부작이
완성된 1997년에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새로운 물결』 부문에 참가되어
『부산국제영화제』에 2회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내 안에 우는 바람〉 3부작은 〈말에게 물어보렴〉(1995, 10분), 〈내 안에
우는 바람〉(1996, 40분), 〈길 위에서의 휴식〉(1997, 63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화는 각각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시간에 대한 의식을 형상화한 3부작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끝 죽음을 놓았에

49) 1959년 속초생, 경성대 연극영화과 졸업. 파리 영화학교(E.S.R.A.)에서 수학, 파리
7대학과 8대학원에서 영화 공부. 현재 경성대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
산의 젊은 영화인들과 독립영화사 「동굴」을 설립하여 독립영화 창작을 하고 있다.
50) ′주목할만한 시선′은 공식경쟁부문 다음으로 중요한 부문으로 독립하고 개성있는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젊은 신예감독들의 작품이 선정되는 부문. 우리나라 작품
으로는 1977년 이두용 감독의 〈불래야 불래야〉, 1989년 박용권 감독의 〈암아 동
족으로 간 친부〉에 이은 세 번째 작품으로 한국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 받은 동시에
세계 전출 가능성도 보여준다.
51) ′감동이이고, 시적이고, 아름답고, 우음하다′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단
편부문 심사위원이자 같은 영화제 사이 amet으로 참여한 박스 테시에는
〈내 안에 우는 바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서는 프랑스
전Whitespace가 우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 안에 우는 바람』이라는 작품의 특이
주는 끝에 떠올랐다. 이 작품은 고요한 부산으2로 돌아오지만 점차로 이행이 되어가는
어린 소년의 방황을 그리고 있다. 자전적이고 우울한 한 편의 시에서도 한 이
영화는 전수일 감독에 의해 완벽한 흡사영화로 되어났다. 그 역시 프랑스에서
부산영화사/47

두 노인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란 결국 내면에 유효된 것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은 결코 잘 쌓여진 영화의 극적 전개와 같지 않으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시와 같은 형상의 조각들’로 인식하는 이 영화는 이러한 형상의 조각들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속에서 재구성되는 혼란들을 담고 있다.

〈말에게 물어보렴〉은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본 순수의 시간을 표현하였고, 〈내 안에 우는 바람〉은 작가를 꿈꾸는 한 청년의 고독과 방황 속에 내재된 허무한 시간을 흑백의 영상에 담아냈다. 〈길 위에서의 휴식〉은 죽음을 앞둔 노인이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느끼는 내면적인 시간과

52) Color 10min 35㎜/1.85, Cast/아충인, 박철
감작스런 친절과 번개로 인해 거짓말이 꺼지고 집 안의 모든 시계가 정지된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꿈마를 쫓아 마을 시계방에 가서 시간을 맡아내고 한다. 꿈마는 시계방 노인으로부터 아침 일일을 coursework를 알 수 있는 젊은 여자와 만나 오랫동안 즐겁게 보낸다. 영화는 한 어린아이를 통해 정지된 시간에 대한 사고를 표현한다.

53) B&W 40min 35㎜/1.85, Cast/조예현, 김명조
자신이 꾸는 꿈을 처음으로 내려는 청년이 혼자 다락방에 살면서 비밀고백에 꾸는 꿈들은 소형녹음기에 녹음한 뒤 의식이 들면 노트에 옮겨 적는다. 그 꿈들은 주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상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들이다. 그야말로 그와 함께 떠나간 집안의 여자 친구가 있으며, 그녀는 그의 목록부담에 인내를 가지고 책의 환상을 가능하다. 청년은 여자와 함께 자신의 고향의 속초에 가서 초등학교를 방문하며 파거를 돌아본다. 그는 옛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고향 속초가 이제는 자신과 엽실한 공간이 되었음을 느낀다. 여행 후 청년은 노트에 자신의 꿈을 환상시킨다. 그러나 그는 책 출간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며 노트를 불태우고 집을 나선다.

54) Color 63min 35㎜/1.85, Cast/유순철
출가한 자식들의 집에 살기를 거부하고 번 방들을 세놓으며 아내와 살아가는 친숙 노인. 주로 집에서 희생중계를 보거나 자신의 손길을 보고 마당의 나무나지들을 끈으로 동해에 투신 하루하루를 보낸다. 가끔 와올라 꿈속에 있는 복벽에 나가 노인들에 경계를 지켜보만 한다. 마을 어귀에는 항상 풍경을 끌어 아이들이 소란한다. 이들 주위를 떠돌며 풍경을 탐색하다 하는 한 아이와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중년 거지가 있다. 노인이 이 두 사람과 자주 마주친다. 노인은 복벽의 노인들로부터 단체관광 걱정을 받고 여행 매일 준비를 한다. 그러나 어느날 머
외면적인 시간 사이의 공백과 중들을 그려냈다.

〈내 안에 우는 바람〉3부작은 결코 화려하거나 충격적이지 않다. 차분한 영상을 바탕으로 삶의 허무에 대해 숭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타코시마키를 연상케하는 풍자극 화면, 침묵과 독백으로 이어지는 절제된 대사, 담백하고 성질적인 아름다움이 품보이는 영상,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 우는 바람〉을 눈과 귀를 자극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로 순화시켰다. 이는 부산영화의 영화를 안겨주었으며, 동시에 부산의 독립영화제작의 하나의 이경표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Ⅳ. 부산영화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

이상으로 정리하여 본 부산영화사의 통합 우리는 부산에서 이어져온 영화운동들이 결코 한국영화의 변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최초로 영화제작사인 『조선가네마주석회사』가 설립되어 극영화가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영화의 초창기를 개척했던 여러 감독과 배우가 배출되었다. 해방 이후 1948년에는 『예술영화사』가 설립되어 〈해연〉이 제작되었고, 한국전쟁 중에는 전시영화의 제작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1951년에는 부산영화사에 길이 남은 세미다큐멘터리 〈나동강〉이 제작되었다. 1958년에는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창립되고, 이여 “부일영화”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60년대 접어들면서 각종 영화운동 단체들이 생겨나 창작, 비평, 연구, 관계 등의 다양면에서 영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부산영화운동의 전무장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에는 소형영화와 단편영화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부산영화의 명

지참으로 자신에게 다키는 울음에 대해 명언한 불안감을 느)view. 사진을 찍고 초상화를 그리며 하여 수학을 못하는 등 축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노인은 점점 처에 즐거를 보이기 시작하고….

- 370 -
백을 이어왔으며, 드디어 19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부산영화운동의 총 결집체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부산영화계는 한국영화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당당하게 진입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이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비추어 볼 때, 부산영화의 미래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밝은 전망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 책전까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어 영화인들의 사기는 한껏 고무되어 있다.

부산시는 1997년 11월 5일 시정 회의실에서 문정수 부산시장과 부산 국제영화제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성과를 영상산업 발전으로 연계 하기 위한 영상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1단계로 오는도 실내 활용청 건설, PIFF시네마테크 건설, 부산 프로모션 플랜(PPP : 부산영 화배급발전계획) 실시 등의 전략사업을 2000년대 초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극영화·애니메이션·방송제작 산업의 유치, 영화제작 지원사업, 민간공동영화관 건립 등 사업계획과 함께 기장 지역에 영화촬영시 설·영화테마공원·위탁관영시설 등을 병합 영화복합단지인 「아시아민 속촌 및 영화촌 건립」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부산을 영상산업 도시로 육 성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55)

55) 이에 따르면 「PIFF시네마테크」는 300~400명 규모로 수영 요트경기장 또는 올 림픽공원 내에 건설되며 영화시사점, 자료도서관, 300석 규모의 소극장, 영화박물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56) 「주)매우건설이 수영관 매립지에 소 중 대형 8~10개관(각 3천~3천5백석 규모)을 2002년까지 건설, 영화 아이맥스 가상체험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산진구 전 포동에 연면적 5만7천평에 2천~3천석 규모의 10개관을 가진 대형 영화관을 2002년 완공하는 것을 비롯, 「주)부국개발이 전포동 급유단지 인근에 연면적 2만5천평 규모의 10개관을 1999년 9월 개관예정으로 확정해 들어갔다고 밝혔다.

57) 「국제신문」, 1997. 11. 5. 참조.
이렇게 부산영화의 무경이었던 부산영화의 발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합의됨으로 말미암아 부산영화계는 그동안 어깨 수 없이 건지할 수 밖에
없었던 영화 수용운동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제 부산영화계에
분절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과제는 부산영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영화 제작의 활성화 방안을 건전하게 제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1996년 5월 14일에 경성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 주최하였던 〈부산
독립영화 시사회 및 진흥방안 세미나〉의 내용을 시사하는 바가 큼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자 한다.

부산은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문화의 제반 여건이 열악하다.
따라서 영화문화의 활성화, 특히 영화제작의 활성화는 당연히 서울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그 유일한 대안은 독립영화의 육성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독립영화의 육성은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극영화
산업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제작 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전위적인
제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영화, 새로운 감독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또한 그 성격상 독립영화가 되지 않으면 전보적
목소리의 내기 힘들다. 부산에서의 독립영화 활성화를 논한다는 것은 결
전보적 정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큐멘터리의 육성을 함께 논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58)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중력은 시네마타운의 건립, 창작단편
영화제의 확대개편, 독립영화 또는 다큐멘터리의 주제 및 소재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59)

이어 이호인은 부산 독립영화의 주제 및 소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8) 김지석, 〈부산다큐멘터리 운동의 필요성〉, 〈부산 독립영화 시사회 및 진흥방안
세미나〉, 경성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 동물리, 1996, p.32.
59) 주중력, 〈부산 영화문화의 역사와 전망〉, 〈같은 동물리〉, p.19.

- 372 -
부산영화사/51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독립영화만의 색깔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서울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을 영화적으로 비평하는 것으로 축발할 수 있다. (예: 홍성성공작, 문제작 등에 대한 비판적 폐리지, 리메이크, 양동하게 끝고 가는 것) 물론 이런 방식은 지나치게 혼소하며 소극적인 방식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이 사회가 양쪽적으로 급기시하는 문제들을 다루거나 주제나 소재를 부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도 아시아 지역으로 널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 부산의 만연문제, 부산사람들의 서울 지향 또는 열동강, 출세한 경상도 사람과 출세 못한 경상도 사람, 국내에서 행해지는 화교들에 대한 비판적 대우,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일본 교포에 대한 이야기, 한국인의 동남아 여행, 홍콩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 사람들, 베크타에 대한 한국의 위상, 부산사람들의 대화법에 합한 이야기, 부산식으로 연기하고 말하기 등) 이와 더불어 특유의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실생활영화 등 모든 것들도 일반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작 된다면 부산영화만의 색깔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양식적인 측면에서 서는 서술하는 방식이나 창의 방식 모두 부산의 지형, 기후조건, 환경여건 그리고 행동과 인어습관 등에서 비롯된 특수한 방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독립영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제작교육을 중심으로 또는 연계하여 제작의 활성화, 둘째, 독립영화기금의 확보와 운영, 셋째, 16밀리 장편 극영화 제작과 대기업, 방송국과의 연계를 적극 모색, 넷째, 기기, 조정, 평가하는 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60) 이호인 『부산 독립영화 운동의 현실적 모색』, 『같은 팔ǚ룬』, pp.24~27.